

# “회장 4년 단임제 실시...예술인 복지카드 추진”

## 임원직 광주예총 신임 회장 인터뷰

“소통하는 예총, 투명한 예총, 일하는 예총을 만들겠다. 또한 문화예술의 가치를 사회 전 분야에 확장해 광주가 실질적인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총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

오는 22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 2층(카베라홀)에서 광주예총 제10회 회장에 취임하는 임원직 회장은 “협회 중심의 예총을 만들겠다”며 “회장단 회의와 이사회를 정례화해 모든 행사는 회의로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 회장은 예총 운영 방안, 향후 계획, 포부 등을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2003년 광주예총이 창립된 이후 문인 출신 인사로는 처음으로 예총 수장에 선임됐다. 향후 조직의 임원진과 산하협회장, 분과위원장의 교체와 맞물리며 문화예술정책, 집행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학박사이자 철학박사인 임 회장은 ‘당신의 뒷발’ 등 모두 15권의 작품집과 서평집·칼럼집을 펴냈으며 광주시인협회회장을 역임했다.

임 회장은 “다른 무엇보다 예총의 예산을 분기별 또는 사업별 공개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예산 내역과 집행에 대해 예술인들이 쉽게

문인출신 첫 수장...22일 취임식

예산 공개 회계 투명성 높일 것

아트페스티벌 브랜드화

청소년예술제 활성화

신작 시집 출판기념회도

알 수 있도록 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또한 예총 정관을 회원들 의견을 모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횡수 제한이 없어 전임 회장의 경우 3선에 걸쳐 12년간 회장직을 수행했다. 다수의 예술인들과 관계자들은 차제에 선출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열린 예총 운영을 위해 회장 4년 단임제를 실시하고, 논란이 있는 임원 규정의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행 정관에는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 20명이 집행부에 소속돼 있는 상태. 앞으로는 각 산하기관으로 환원해



야 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며 “중앙의 예총에서도 정관을 개정해 현행 선출방식을 바꾸라는 권유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임하는 예총을 구현하는 것도 임 회장 공약 가운데 하나다.

“예총 산하에는 모두 10개의 협회가 있다. 각 협회별 1 직책제를 통해 예총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 이를 위해 정책, 기획, 장학, 후생복지, 예술, 발

간, 자문 등 1 협회장, 1 직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일하는 광주예총을 구현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예술인 복지카드’ 발행도 예총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광주예술인 복지카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임 회장은 “광주 아트페스티벌을 특성에 맞게 세분화해 광주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육성하겠다”며 “더불어 광주청소년예술제를 활성화해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소득이 어려운 예술인 자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광주예총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연계해 예술인 강사 사업 수주에도 역점을 뒀다. 궁극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예술강사 제도를 수주해 운영을 각 협회에 맡긴다”는 복안이다.

한편 임 취임식에서는 임 회장의 신작 시집 ‘매화에게 묻다’ (사의재) 출판 기념회도 열린다. 문의 010-3619-3831, 010-9545-124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흔히 그 도시가 ‘문화도시’ 아니냐는 도시의 분위기, 시민들이 ‘문화적’이나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프랑스 파리를 예술의 도시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바로 맛을 아는 시민들의 미의식 때문이예요. ‘파리지앵’들은 스키프 하나를 목에 두르더라도 확실하게 달라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광주에 내려갈때마다 ‘광주다운 색깔’을 느끼지 못했어요. 대구를 가든, 전주를 가든, 국내 도시들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지난 2006년 4월, 광주일보 창사 54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서 이어령(84) 전 문화부 장관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광주만의 톨’을 역설했다. 2시간의 대담이 10분 정도로 느

울, 부산, 김해 등 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공디자인을 화두로 삼은 것과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이다.

지난 2007년 5월 디자인 서울총괄본부 발족한 서울시는 공공디자인 분야의 권위자인 권영길 서울대 미대학장을 수장으로 앉혔다. 말이 본부장이지 부시장급에 해당하는 요직이었다. 불거리가 많았던 도시의 분위기가 ‘문화적’이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듬해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 초기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한가하게 디자인 타령’이라는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똑심있게 추진한 덕분에 도시경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듬해에는 세계디자인 수도로 선

## ‘총괄건축가제’가 반가운 까닭은

꺼질 만큼 열변을 토하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문화수도의 미래와 관련된 질문에는 인문학적 해안과 통찰력으로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역설했다. 무엇보다 그는 광주의 회색빛 거리와 색감없는 건축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간판과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듯 한 건물들을 볼 때면 예향과 비엔날레 도시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른 지금, 광주

의 거리와 건축물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도시를 거닐다 보면 여전히 칙칙한 건물과 여백을 찾지 못한 간판들이 거리를 압도한다. 그야말로 ‘소리없는 아우성’이다.

여기에는 지난 2005년 이후 제1회 디자인비엔날레와 2018년 국제도시 디자인 포럼 등 빅 이벤트를 공공디자인과 연계하지 못한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 탓이 크다. 지난 2000년 이후 서

정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최근 광주시도 건축·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공공행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해 광주다운 도시공간을 창출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매력적인’ 광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정체성과 건축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량있는 총괄건축가 선임과 행정의 뒷받침이 전제돼야 한다.

한 도시의 품격은 화려한 랜드마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미적 감각이 가미된 건축물, 정체성 있는 간판,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길거리의 쓰레기통까지 ‘생활 속 디자인’들이 어우러질 때 더욱 빛난다. 모쪼록 이번 총괄건축가제가 광주의 개성을 살리는, 마법의 카드가 되길 기대한다. <제작국장·문화전문기자>

## 재즈 피아니스트 조운성·보컬 이지혜 만남

24일 광주 ‘살롱 드 재즈’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조운성과 보컬리스트 이지혜가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예술의 거리 ‘살롱 드 재즈’ (예술길 19-2)에서 듀오 공연을 갖는다. ‘조운성 with 지혜리’ 공연은 살롱 드 재즈가 특별 기획한 재즈 공연이다.



조운성



이지혜

조운성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음악원과 미국 버클리음대,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에서 클래식 피아노와 재즈학을 공부했다. 그는 대학 졸업 뒤 아시안으로 는 최초로 ‘마르시알 솔라’ 재즈 콩쿠르에 입상해 유럽 재즈계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조운성은 재즈 피아니스트 거장 허비 행콕에 발탁돼 ‘멜로니어스 몽크 재즈 인스티튜트’에서 활동했다. 허비 행콕의 모습은 오는 22일 광주극장에서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허비 행콕:무한한 가능성’에서 만날 수 있다. 또 프랭크 시나트라 밴드 2수석 피아노연주자를 역임하고 미국 헐리우드음악학교, 쉐퍼드대학교, 장안대 등에서 교수로 활동했다.

조운성은 그동안 더블베이스리스트 허진호·성민재와 듀오 앨범(2006·2016), 보컬

리스트 마리야키 듀오 앨범(2017) 등 여러 음반을 발매했다. 지난 2009년에는 첫 번째 단독 앨범 ‘바흐 리노베이션’을 내놓았고 이날 함께 무대에 오르는 이지혜와는 지난 2017년 피아노&보컬 듀오 프로젝트 두번째 싱글 ‘듀 유 러브 미’를 작업했다.

이지혜는 미국 맨하탄 음대 재즈작곡 석사과정과 버클리음대 재즈작곡·보컬 학사 과정을 이수했다. 재즈작곡 분야 최고상으로 꼽히는 ‘듀크엘링턴 어워드’에서 2회 연속 수상하며 주목받았고 ‘길에반스 어워드’, ‘아웃스탠딩 퍼포머 어워드’, ‘보컬 디파트먼트 어워드’, ‘2018 BMI찰리파커 프라이즈’ 등의 수상경력이 있다. 전석 3관왕. 문의 010-9992-440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이난영, 우리나라 최초 걸그룹 멤버서 모티브

김미승 시인 두 번째 청소년 소설 ‘저고리 시스터즈’ 발간

‘목표의 눈물’ 이난영이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 ‘저고리 시스터즈’ 멤버였다는 사실에서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소설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시로 등단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미승 시인이 두 번째 청소년 소설 ‘저고리 시스터즈’ (다름)를 발간한 것. 책은 일제강점기, 절망적인 역사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 있는 두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설에 봉필순과 김섭섭이라는 두 소녀가 등장한다. 새벽같이 일을 나간 엄마를 대신해 아침밥을 짓는 딸딸 봉필순은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소녀다.

필순은 아예 다니면서 한글을 깨치고 언젠가는 경성에 가 뽕족구두를 신고 커피를 마시는 신여성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는다.

반면 아버지가 한성 권번에 팔아버린 김섭섭은 당시 나이가 여덟살이었다. 섭섭은 권번에서도 쫓겨나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집의 식모가 돼 허드렛일을 한다. 그녀 나이 열네 살 때, 야학당 사건으로 필순이 경무국장의 집에 오면서 두 소녀는 함께 살

게 된다. 두 소녀는 노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서로 마음을 터놓은 친구가 된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고 섭섭은 군대 위안부로 끌려

갈 위험에 처한다. 친구가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지 모른다는 생각이 필순은 섭섭의 손을 잡고 야반도주를 한다. 과연 이 두 소녀는 무사히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좇아 고군분투하는 두 소녀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작가는 “그 시절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희생을 당했다”며 “자숙한 안개를 헤치며 고지를 향해 쫓듯이 꿈을 찾아가는 봉필순과 김섭섭, 이 두 소녀를 담은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조상 양복점**  
서구 상무리로 6 김대중센터 마루역옆  
50년 전통 결혼 예복 및  
특수양복 맞춤 전문기능사  
디자인 기술로 몸에 맞게 맞춰드립니다.  
☎062-374-7369, 010-7269-7369

**꼬야전통마사지 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절 신용 분위기  
☎010-9277-2011, 010-4624-8457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시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력·양력)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루팡닭강정**  
북구 용봉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야맨션 건너편)  
☎062)251-8400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그 집 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